

말씀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 (살후 1:3-4)

2024년 새해를 주시고,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신생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에서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사모하고, 성경을 가르쳐보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랄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사랑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비로서 믿음이 온전해 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가정

데살로니가교회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잘 견뎌내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러 교회에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로 푹푹 뭉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에서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함께 견뎌내고 이겨내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

2024년 설날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기도 시편 128편 1-2절 인 도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새 559)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대표

성경봉독 데살로니가후서 1장 3-4절 인 도 자

말 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 인 도 자

기 도 근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4절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4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